

# 북스

Books

## 사랑하는 당신의 베개에 적셔지는 눈물이 눈에 선합니다

그대 가슴 속에 살아 있고 싶다 **윤병욱** 엮음

독립운동가 도산(島山) 안창호(1878~1938) 선생은 20세기 전반기 한국 최고의 여행가이기도 했다.

비행기 여행이 없었던 시절, 그는 증기선과 시베리아 횡단열차 등을 타고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미국,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등 30여년간 12개국 120여 개 도시를 방문했다. 외국으로 떠돌던 시절, 그는 늘 '편지'를 썼다. 고국에 남겨진 아내 이해련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윤병욱씨가 엮은 '그대 가슴 속에 살아 있고 싶다'는 그가 아내와 조국에 띄운 편지 모음이다.

책에는 안창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착 후 보낸 첫 편지(1904년 3월 25일)부터 두 번의 투옥 끝에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의 마지막 편지(1936년 8월 7일)까지 모두 110통이 실려 있다.

편지는 윤병욱의 흥구 공원 도시락 폭탄 투척의 배후로 지목돼 상하이 감옥에 잡혀 있을 당시 쓴 옥중 서한과 샌프란시스코 유학 시절, 중국-러시아로 이어진 망명 시절, 상하이 독립운동 시절, 마지막 미국 순행 시절 등으로 나누어 묶었다.

결혼 생활 37년 동안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생활한 것은 고작 10년 남짓이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지만 '편지'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라를 걱정하고, 가족의 미래를 상의하며 항상 '함께'였다.

때론 힘겨움도 토로하고, 가끔은 서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언제나 '나의 사랑하는 해련에게'로 시작되는 그의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그는 '못 한법, 신 한 결레 제매 갖지 못했던 당신'(1917년 멕시코 메리다에서)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고 '당신의 베개에 적셔지는 눈물이 내 눈에 선하다'



### 아내와 조국에 보낸

### 안창호의 러브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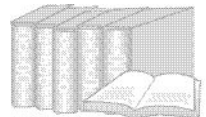
멕시코 순행을 떠나기 전 가족과 함께한 안창호 선생.(1917, 39세)

(1934년 대전 형무소에서)며 아내를 위로한다. '입을 뻐죽하던 당신을 생각하고 혼자 속으로 웃는다'(1920년 상하이에서)며 유머 넘치는 편지도 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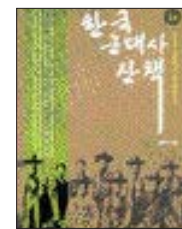
그는 또 '나도 집을 떠나 객지 생활만 하니 지루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 합니까. 나야 이리다가 마칠 사람입니다'(1925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라며 자신을 다잡고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사양치 아니하겠다'(1907년 오를랜드에서)며 독립 운동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불태운다.

책 뒷부분에는 그가 필영, 필립, 필선, 수산, 수라 등 다섯 아이에게 띄운 편지를 실었다. '마음만 든든히 가지면 성공이 있다', '사람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친구를 가리어 사귀며 책을 가리어 보아라' 등 그가 편지를 통해 전한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귀한 삶의 지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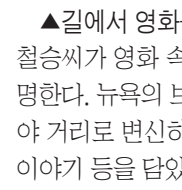
편지 중간 중간 엮음이 편지가 쓰여진 시절의 역사적 배경과 뒷 이야기 등을 실었으며 안창호 선생과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귀한 사진들도 많이 실려 있다. <샘터·1만2천원>



### 새책



▲한국 근대사 산책(전 5권)=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교수의 '한국사 산책' 시리즈 중 하나. 전문화·세분화돼 있는 한국의 근대사를 종합화·총체화하고 근대의 큰 줄기와 장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 논쟁과 논란을 소개해 '생각하는 역사'가 가능해 했다. <인물과사상사·각 권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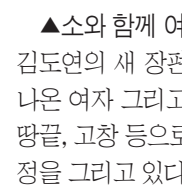
▲길에서 영화를 만나다=1997년부터 미국에서 영화를 공부한 이철승씨가 영화 속 장소와 영화에 활용된 LA의 실제 모습을 비교 설명한다. 뉴욕의 브로드웨이로, 유럽의 고풍스런 도시로, 일본의 사부야 거리로 변신하는 LA의 다양한 모습과 역사, 현지 사람들의 사생활 이야기 등을 담았다. <쿠오레·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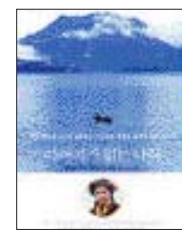
▲선택(舌禍), 역사를 뒤바꾼 치명적 말 실수=작가 이경체씨가 역사적 인물들의 '말(言) 실수'를 분석했다. 저자는 개국 공신임에도 이방원에 제가당할 정도로, 신숙주의 아들 신정, 연산군의 처남 신수근 등의 불행한 말로가 모두 '말'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천문미디어 1만원>



▲21세기에는 지켜야 할 자존심=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올 초 '자존심'을 주제로 진행한 '인터뷰 특강'을 책으로 엮었다. 진중권, 정재승, 정태인, 박노자, 고미숙 등 논객들이 존재·과학·한미 FTA·이주노동자 등 8가지 키워드로 '우리의 자존심'을 해부한다. <한겨레출판·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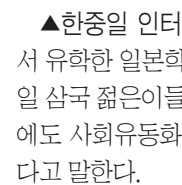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소설집 '0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쓴 김도연의 새 장편소설. 소 팔러 나온 사내와 남편 장래를 마치고 떠나는 여자 그리고 암소, 이들 셋이 황성 우시장을 시작해 청도, 해남 땅골, 고향 등으로 거쳐 한국동 조계사로 향하는 우고고도 기묘한 여정을 그리고 있다. <열림원·9천원>



▲아버지가 없는 나라=모계사회인 중국 모췌족의 이야기. 모췌족인 양 알처 나무와 서양인 첫 모췌족 연구자인 인류학자 크리스틴 매튜가 함께 썼다. 양 알처 나무의 일생을 통해 모계사회를 1천500년간 유지해온 이들의 독특한 문화와 풍습 등을 엿볼 수 있다. <김영사·1만천원>



▲조선의 상식=육당 최남선(1890~1957)이 들려주는 조선의 상식 이야기. 최남선이 '매일신보'에 연재했던 글을 묶은 책 '조선상식문답'을 현대 독자들에게 맞게 고친 것이다. '국호', '지리', '물산', '풍속', '역사' 등 1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두리미디어·1만원>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서울대 등에서 유학한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다카하라 모토아키가 한·중·일 삼국 젊은이들의 갈등을 분석했다. 삼국은 서로 다른 국내 사정임에도 사회운동화라는 공통점으로 '불안한 내셔널리즘'이 싸움을 피웠다고 말한다. <심인·1만2천원>



▲중국의 수수께끼='사기'를 재조명하면서 주목받은 중국 연구가 김영수씨가 20여년간의 연구와 현장 조사 끝에 내놓은 중국역사 교양서. 오·송 선양의 진실, 엽기 취향의 제왕, 명군과 수명의 함수관계, 치수 등 15개 주제로 중국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했다. <랜덤하우스·1만4천800원>

## 과학으로 풀어낸 건축물의 미스터리

가우디도 풀지 못한 건축의 수수께끼 '롬 인터내셔널' 지음

해외여행을 해 본 사람이라면 세계적 건축물 앞에서 "우와~"하는 탄성을 질러볼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감탄은 "이걸 어떻게 세웠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진다.

일본의 책 기획제작 모임 '롬 인터내셔널'이 쓴 '가우디도 풀지 못한 건축의 수수께끼'는 이같은 궁금증을 '다소' 해결해준다. 이들이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들이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영국의 스톤헨지는 거인이나 마법사가 세웠을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은 과학적 증거들로 뒤집힌다. 기원전 3000년~2000년~1000년 등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인간에 의해 건설됐으며, 천문과 관련된

것이라는 설에 대해 설명한다. 하지만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겼고, 세웠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일 뿐이다.

공중에 떠 있는 돌로 유명한 터키의 아야 소피아 대성당은 양립하기 힘든 바실리카 형식과 집중형식의 융합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30미터 직경의 거대한 돔이 어떻게 지탱하는 기동 하나 없이 '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557년에 지진으로 무너져 다시 세우면서 예전의 훌륭한 빛의 예술을 잃었다는 것은 안타다.

저자들은 미공의 모델인 그리스의 '크로노스 궁전', 금빛 모자이크화의 비밀을 간직한 이탈리아의



'산비탈레 성당' 등 전세계 56개 건축물을 소개하면서 유난히 주목받았으면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한다. 건축물에 숨겨진 진실과 미스터리 등은 수수께끼 같은 건축의 신비에 살을 더한다. 뒷발 보며 따라 걸기 마련인 해외 여행의 길을 넓혀주기에 충분하다.

흥미로운 점 하나. 저자들이 뽑은 '대단한' 건축물에는 우리나라의 온돌식 주거도 포함됐다. 발열을 이용한 '친환경 난방 시스템' 온돌의 역사는 한반도 북부의 선사시대 반지하식 주거에서 시작됐다. 워낙 추운 곳이라서 음식 짓고 난 연기로 바닥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낸 것이다. 얇은벽이 책상이나 낮은 천장, 열이 새는 것을 막는 한지 등 역시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선조들의 지혜였다. <웅진영스·9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해리포터 완결편

1·2권 번역·출간



드디어 나왔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해리포터 시리즈'의 완결편인 제7권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전 4권) 1·2권이 우선 번역·출간됐다. 3권은 이달 말, 4권은 다음 10일 각각 나올 예정이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팔린 책',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등 화려한 수식을 등에 업고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 출판시장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에서도 6탄까지 1천100만부 판매라는 기록을 세웠다.

열일곱 살이 되는 순간 보호 마법이 깨지고 볼드모트의 공격에 노출될 것이 예견된 해리는 17번째 생일을 앞두고 더즐리 가족과 집을 떠난다.

<문학수첩·각 권 8천500원>

###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5주	11월 20일
	주택관리사	5주	11월 20일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수료후 현금 ■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앞으로 세무직 많은 채용 예정!! =

## 7·9급 공무원

행정+공안+기술직

== 전국 유일의 정통 권위 강사진 총출강!! ==

개강: **11월 15일 주·야(휴일)반 모집** (원.정.수.목.금)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www.kjkimyoung.co.kr

일반대/ 사범대/ 약대/ 한의대

## Final Course 개강

12월 3일

문제풀이반 6주완성 | 이론과정반 6주완성

편입이런? | 학년 대비반 12월 17일 개강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9088

##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소리없이 다가오는 훈훈함~ 원적외선 플레이트 웰빙히터! 전기 히터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로터히터와 연풍기의 장점을 하나로~ 원적외선 프리미엄 웰빙히터! 화력 조절과 원거리 입체 난방까지

모델명	면적
AH-71S(10~17㎡)	
AH-730(20~23㎡)	
AH-250(50~83㎡)	
AH-280(33~75㎡)	
AH-790(73~79㎡)	
AH-705	7~10㎡
AH-72S	17~20㎡
AH-750	33~40㎡
AH-780	40~60㎡
AH-100	33~66㎡
AH-330	60~99㎡
AH-630F	116~149㎡
AH-830	132~165㎡
AH-830F	165~198㎡
AH-630(90~130㎡)	

고효율의 특허 기술력! 냄새, 소음 저감 장치 채택

난방비 절약! 써보신 분이 권해드립니다.

실내용: 사무실, 학교, 학원, 호텔, 은행, 병원, 레스토랑, 휴게소, 도서관, 연수원, 미용실, 교회, 주유소 등

실외용: 골프장, 놀이동산, 카센터, 공장, 야외행사장, 레저시설, 공사현장, 테니스 등 개방된 장소

무등산업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840-14(첫등육교 옆) (062)371-7095, 011-601-7701

AIRREX 에어텍스 원적외선 히터 총판

찾아오시는길: 화성역거리 무등산업, 상무지구 임원역거리